

韓國都市의 經濟的 構造分析

朴 英 漢

I. 序 論	Requirement
II. 資料 및 概念適用上의 問題點	IV. 都市規模와 經濟構造
III. 韓國都市의 Minimum Service	V. 結 論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本研究은 basic-nonbasic 概念을 適用하여 巨視的인 立場에서 韓國都市의 經濟的 構造¹⁾를 分析코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都市의 經濟的 構造에 對한 종래의 研究은 어떠한 空間的 關聯性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都市自體의 전체 고용자數에 基반을 두고 都市自體가 수행하는 機能에 따라 分類 또는 分析되었다.

그러나 都市는 그 自體만으로 生存할수 없으며 背後地(hinterland)와의 相互關聯下에서 財貨와 用役을 移出 移入하는 過程에서 發展한다. 그러므로 都市의 經濟的 機能中에서도 一定 比率의 産業종사자는 都市自體를 유지시키는 데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그 自體都市 以外的 地域住民을 위한 産業에 活動하고 있다.

이러한 都市全體 고용자中에서 city-serving employment를 分離시킴으로써 都市의 經濟的 構造를 分析하는 方法이 第2次大戰이후 主要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다²⁾.

本研究의 目的은 Urban Economic Base 研究에 定量的 方法으로 널리 사용되는 Minimum Requirements Method가 韓國의 都市構造에서 使用可能한가 를 시험하고, 都市와 背後地와의 空間的 相互關聯下에서 韓國 都市가 수행하는 經濟的 機能이 얼마만큼의 basic-nonbasic의 비율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都市規模에 따라 經濟的 構造가 어떠한가 를 分析코자 하는 데 있다.

2. 研究의 方法

都市의 經濟的 構造分析에는 一定한 基準(benchmarks) 設定이 필요하다. 都市의 經濟的 構造는 都

市自體만으로 形成되는 것이 아니고 背後地와의 關係에서 성립된다. 그러므로 都市의 經濟構造는 上位經濟構造(larger economy)에 의하여 부분적이나 마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흔히 사용된 方法이 location quotients이며 이것은 主要 國民經濟的 單位에서 都市別 産業의 相對的 集中度를 나타내는 데는 편리하나 都市의 經濟構造分析에는 다소 조잡한 方法으로 보인다³⁾.

여기에 Morrissett⁴⁾는 Alexandersson의 “K” value (Gunnar Alexanderss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American Cities, Cincoli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56)에 同等的한 5th percentile (5 percentile ranked city)을 사용하였다.

그는 美國을 北東部와 南部및 西部의 兩大地域으로 區分하고 불연속적인 都市規模에 의하여 地域別로 group化하였다. 그리고 geographical location과 city size와 관련시켜 都市의 經濟的 構造를 分析하였다.

資料는 1950年 人口 Census로부터 1萬이상 都市 740個에 대하여 各産業에 따라 都市規模別로 5th, 50th, 90th percentile의 圖表를 作成하여 “K” value를 求하였고 “Employment-Ratio” distribution을 통하여 都市規模와 location에 따라 經濟構造를 分析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짓기를 이와같은 曲線은 都市의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經濟構造의 變化를 豫見하여 장차 特定産業에 必要한 雇傭構造를 豫見하는데 利用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對하여 Ullman과 Dacey⁵⁾는 5th percentile보다도 실질적으로 minimum percentage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이 minimum requirement를 service or internal need의 근사치로 보았고 이보다 많은

종사자數를 excess employment 라하였다. 이 方法은 export-internal or basic-service ratio approach의 長短의 문제가 아니라 都市를 비교하는데 새롭고 健全하고 的의있는 方法을 제공한 것이 중요한 利點이라 하였다.

이들은 Morrissett와 같이 많은 都市를 對象으로 하지 않고 random 方式에 의하여 100萬 이상 都市는 14個, 그이외의 都市規模에서는 38個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regression line에 의하여 個別都市의 excess employment를 계산함으로써 都市間의 經濟的 特性을 비교하였다.

여기에 對하여 Richard T. Pratt⁶⁾는 location quotient와 minimum requirement technique 兩者를 비교하면서 많은 비평과 평가를 하고나서 보다 새로운 分析方法으로서 "The Maximum Requirement Technique"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이 비평에 대하여 Ullman⁷⁾은 minimum requirement technique 設定에 對한 尤래를 설명하고 비평점을 공박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하여간 이와같은 minimum requirement 자체를 정당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고용인구와 經濟的 機能을 동등시킨 점과 urban place의 선정문제 등은 研究되어야 하고 직접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⁸⁾.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觀念的인 立場에서 basic-nonbasic의 精確한 계산에는 여러가지 難題가 있으나 minimum requirement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本研究 方法 역시 minimum requirement에 의하여 "K" value를 구하고 都市經濟構造分析은 Morrissett의 研究方法를 토대로 하였다.

資料는 韓國經濟發展의 基準이 된다고 보여지는 1960年 人口 Census에서 人口 3萬 이상의 都市(邑包含)를 對象으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規模에 따라 階級을 分類하였다.

Table 1. Class intervals and number of urban units

Urban Population	Number of Cities
30,000~ 50,000	17
50,000~ 80,000	13
80,000~200,000	9
200,000 and over	6
Totals	45

Morrissett의 研究는 人口 1萬 이상의 都市를 對

象으로 하였으나 本研究는 많은 小都市의 影響을 피하고 또한 3萬이하의 都市는 行政區域內에 많은 1次産業人口를 포함하여 分析의 애로점이 예상됨으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table 1에서 보는 바와같이 都市의 階層別 區分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알지못될 수 있는한 大都市數가 적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萬 이상의 都市를 한 group으로 하였다. 20萬 이상의 都市를 1個 group으로 잡은 것은 背後地와의 關聯에서 區分한 韓國의 圈域區分(建設部 圈域報告書)에서 4大圈의 中心地인 서울, 부산, 대전, 광주에다가 이와 동등 이상의 人口數를 가진 대구와 인천을 포함시켰다.

都市의 階層別 區分에는 李漢淳 教授에 의하면⁹⁾ 5萬이하의 都市를 局地的 農村中心이란 의미에서 地方都市 5~10萬을 小都市, 10~50萬을 中都市, 50~100萬을 大都市, 100萬 이상을 巨大都市로 區分하였고 建設部 國土綜合開發計劃 第1次 市案(1970年)에 의하면 5萬이하, 5~10萬, 10~25萬, 25~50萬, 50~100萬, 100萬 이상으로 分類하고 있다.

事實上 本研究에서는 人口規模를 基準으로 할 때 零細都市, 小都市, 中都市, 大都市의 4階級으로 分類된 셈이다.

그다음에 各個別都市의 產業別 人口의 Percentage를 구하고 이것을 各產業에 따라 最高值에서 最下值까지 順序적으로 배열하였다.

Morrissett는 各都市規模의 階級에서 變量의 下部序列에서 5th percentile의 都市가 나타낸 數值를 一定規模都市의 一定產業에 기대되는 經濟活動의 city-serving percentage employment라고 규정하였으며 이것은 Alexandersson의 "K" value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都市數가 10個인 階級에서는 lowest value를 5th percentile로 취하고 20個 都市 group에서는 最下位值나 第2의 最下位值의 中間值를 취하였다. 또한 Washington D.C와 같은 독특한 經濟構造의 都市와 大學都市는 제외시켰다.

本論文에서는 都市의 規模別 數가 적은 것이 큰 애로점이므로 necessary minimum requirement가 높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어 자칫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5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數值는 Ullman과 Dacey의 minimum requirement technique를 적용하여 規模別 最下位值를 non-basic employment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最下位 都市가 特別한 產業構造에 의하여 特化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一定都市의 產業人

口比率이 特化된 鑛山都市인 長省邑과 農水産業等 第一次 産業人口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都市經濟의 주축인 2,3次 産業종사자 數가 상대적으로 극히 낮은 安康邑도 제외하여 3萬以上 都市 47個中 45個 都市가 分析의 對象이 되었다.

Morrissett 는 地域別로 區分하였으나 本研究은 都市數가 적고 經濟地域의 구분시도가 아직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은 國土內에서 同一한 社會經濟的 體制下에서 背後地의 活動이 地域間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location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全體地域을 一個의 地域單位로 설정하였다.

또한 1960年 이후 經濟開發計劃의 실현으로 都市가 同一經濟體制로의 성장에 많은 變革이 예상되므로 豫見은 삼가하였고 原因分析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比較法을 행하였다.

그리고 Morrissett의 Specialization Index와 都市規模에 의한 産業別 minimum, median, 90th percentile의 Employment-Ratio distribution을 算出함으로써 都市經濟의 特化 및 多角化 現象과 都市規模의 變化에 따른 都市經濟構造를 分析하였다.

II. 資料 및 概念適用上的의 問題點

일반적으로 어떠한 西歐의인 理論이 非西歐의인 地域의 分析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¹⁰⁾ 또한 애로점이 많다. 이 方法 역시 工業化되고 背後地와의 關係가 健全한 先進工業社會의 諸都市를 中心으로 導出된 것이며 많은 都市數를 對象으로 광범한 地域에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 背景과 社會的으로 많은 相異한 要素를 내포한 韓國社會의 都市에 適用하는 데는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다.

그러면 資料수집 對象인 都市地域의 問題를 살펴보자. 실상 韓國에서는 Morrissett나 Ullman, Dacey의 研究에서 資料를 수집한 것처럼 urbanized area나 standard metropolitan area data는 얻을 수 없으며 유일한 方法은 行政區域單位에 의한 것이다. 이 行政區域에 의한 資料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韓國都市는 一定한 기준없이 人口數에 의해서만 區分되고 選舉制度에 따르는 行政區域의 變경으로 非正常의 人口를 포함하여 一定都市地域內에는 農村地域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¹¹⁾. 그러므로 그러한 行政區域을 都市地域이라 가정할때 상당히 조잡한 資料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西歐의 都市地域에서처럼 보다 현실적인 資料는 얻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東洋의 都市는 또

한 西洋都市가 갖지 못하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即 Stoner가 인도都市의 經濟基盤分析에서 말한 바와 같이 西歐처럼 住居地나 産業活動場所가 거의 分離되어 있지 않고 土地利用도 混在되어 있으며 交通機關의 未發達로 個人的 移動性이 거의 限定되어 있으므로 西洋都市처럼 住居地와 産業活動地 間의 不一致에서 유인되는 자료상의 缺點은 없다¹²⁾. 다시 말하면 都市數가 적다든가 都市地域 內部에 상당수의 農業人口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都市地域과 行政區域 間의 不一致 등으로 都市의 non-basic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나 住宅地와 産業活動地間의 不一致現象은 제거되므로 韓國의 現實에서도 city-serving needs를 조잡하나마 얻을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統計資料의 産業區分 역시 1950年 U.S. Census는 36 employment categories인데 비하여 韓國의 1960年 人口 Census에서는 9個의 categories이므로 機能分析에 미비점은 있다. 그러나 Ullman과 Dacey¹³⁾는 오히려 細分類로 말미암아 minimum requirement가 극히 낮을 우려가 있어 14 industry types를 선정한 점으로 보아 韓國의 産業分類가 거시적으로 볼때 構造分析上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

本論文에서는 9 categories中에서 農業部門과 分類不能의 産業을 제외한 7 categories에 의하여 經濟構造를 다루었다.

I. 鑛業 및 採石業, II~III 製造業, IV 建設業, V 電氣 Gas 水道 및 衛生서비스業, VI 商業, VII 運輸業, 保管業 및 通信業, VIII 서비스業.

III. 韓國都市의 MINIMUM SERVICE REQUIREMENT

Ullman과 Dacey의 minimum requirement technique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는 매우 흥미있고 의의 있다고 보여진다(Table 2). Stoner 역시 Morrissett의 5th percentile에 의한 分析이 몇몇 産業을 제외하면 美國都市의 "K" value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결과라고 기술하고 있다.

많은 都市數를 對象으로 5th percentile을 사용한 美國都市와 인도都市에 對한 "K" value와 都市數가 적은 韓國에서 minimum requirement를 사용한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都市數가 적은 地域에서는 Ullman과 Dacey의 方法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지역간의 都市選定上 人口規模의 差異는 있을지언정 類似性을 나타내고 있어 소위 "K" value는 어떠한 地域에서든지 利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듯하다.

TABLE 2. Gross Service Requirement Summary

Industry	U.S 1950	KOREA 1960	INDIA 1951
Mining	0	0	—
Durable manufacturing	0.3 } 1.9%	8.2	10.8
Nondurable manufacturing			
Trade	14.2%	14.5	13.1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2.9%	3.1	2.5
Construction	3.5%	2.2	} 19.9
Service	15.2%	25.2 } 25.4 0.2	
Total	37.7%	53.4	46.3

service requirement 中에서 韓國과 인도는 美國과 달리 製造業이 立地上으로 ubiquitous 하다. Stoner 는 이것을 交通과 移動性¹⁴⁾의 差異라고 보았다. 물론 東西洋 特히 先進國과 開發途上 國家間의 相對的인 差異는 있을지라도 韓國에서는 近代工業이 이룩되지 못하고 地方分散의인 傳統工業의 所產이라 간주된다. 또한 都市의 製造業이 都市民을 위한 被服 食品 家具의 製造와 修理가 대부분이며¹⁵⁾ 많은 零細規模 製造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service 業이 어느 地域을 막론하고 city-serving employment 中에서 가장 높으며 美國 보다 韓國과 인도가 월등히 높다. 즉 東洋的 後進社會에서 그 비율이 보다 높은 것도 흥미있는 사실이다. 이들 地域은 農村의 人口壓力으로 말미암아 移出된 勞動者가 都市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產業인 점에서 開發途上國家의 共通性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기에 부가하여 韓國은 6.25 動亂으로 인한 혼란과 人口의 移動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人口의 많은 部分이 第3次產業에 寄生한 점과 外國援助와 관련된 非正常的인 여러 方面의 就業의 結果¹⁶⁾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gross service requirement 를 살펴보자. Alexandersson 은 一定都市 自體民에 게 必要로 하는 財貨와 用役의 最少量을 “K”value 로서 설명하였다. 이 推定에 對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지라도 necessary minimum 으로서 意義를 가진다¹⁷⁾면 韓國에서는 一定產業 從事者의 약 53%가 non-basic needs 에 응하고 있고 약 47%가 都市生長力이라 할 수 있는 city-forming activity 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Morrissett 의 研究에 의하면 美國에서는 37.7%가

non-basic employment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과연 美國 都市는 실질적으로 背後地에 對하여 보다 많은 services 를 “exporting”하고 있는가¹⁸⁾ 하는 문제와 東洋的 都市成長과 社會構造의 差異性의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Stoner 는 좁은 背後地의 都市는 넓은 背後地를 背景으로한 都市보다 都市 自體民을 위하여 많은 產業人口를 요구한다는 가정을 세웠고, 거기에 背後住民의 移動성과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nonbasic employment 가 많다고 보았다. 즉 背後地農民은 交通機關의 未發達로 인하여 都市의 財貨와 用役に 쉽게 접할수 없었고 이들 農民의 貧困으로 都市로부터 財貨를 구입할 화폐를 소유하지 못한 점도 높은 non-basic employment 의 原因이 된다.

韓國의 村落은 아시아의 共同體의 성격을 띠면서 日帝에 의하여 強制的으로 실시된 이른바 土地調査事業을 계기로 私의土地所有制가 확립되기까지 中央集權的 官僚體制에서 收奪을 당하였으며 직접 生産者인 農民은 零細化의 길을 걸어왔다. 그후 半封建的 地主制에 의한 生産關係는 半農奴的인 零細農耕이 中心이 되는 村落社會로 변모되었으며 農地改革으로 農民의 土地所有制가 成立되었다. 그러나 小農의 生産樣式은 그대로 계속되어 農業의 零細性을 오히려 量的으로 擴大시킨 결과를 가져왔다¹⁹⁾.

여기에 農村의 過剩人口가 他產業에 흡수되지 못하여 村落內部에 潛在失業을 形成 유지시켰고 또한 農產物 價格의 低落으로 單純再生産은 커녕 축소재 생산의 길을 걸어온 것을 상기하면 農民의 구매력 부족은 都市의 높은 non-basic structure 에 작용한 바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韓國의 都市는 歷史的으로 統治機能을 위한 都市體制였으므로 生産活動 아닌 統治者 자신 의 消費活動을 爲한 場所였다. 이와같은 전통과 관습이 아직 파괴되지 못하였고 産業化가 이룩되지 않은 상태에서 都市는 단순히 自體의 消費를 위한 nonbasic 產業의 集合體的 構造이며 역시 city-serving의 비율을 높게한 要因이 될 수 있다. 또한 都市發達過程에서도 東洋의 都市는 단순한 農業人口의 地域에 行政的 機能이 부여되었거나 農民住居地로서의 集村이 형성된 후 이들을 위한 商業的 機能이 後次的으로 成立됨으로서 都市化가 이룩되고 있다는 點과도 관련된다고 본다. 이와같이 都市內的 外的作用이 복합됨으로써 都市의 service ratio 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IV. 都市規模와 經濟構造

1. 都市規模와 Minimum Requirement

限定된 都市數를 다시 規模別로 細分함으로써 一定規模別 都市數는 더욱 더 적어 分析의 애로점이 많으며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체

로 都市規模가 커짐에 따라 minimum requirement 는 상승하고 있다(Table 3).

특히 8萬이하 都市와 그이상의 都市와는 確연한 差異點이 있다. Table 3에 의하면 3~5萬都市는

Table 3. Minimum Service Percentages Employed in Cities of Varying Size Classes and National Percentages, 1960

Population Industry type	National values	National percentage	30,000~50,000	50,000~80,000	80,000~200,000	over 200,000
I	0.0	2.1	0.0 (0.0)	0.0	0.1	0.2 (0.3)
II~III	8.2	20.5	13.1 (22.3)	8.2	12.9	17.7 (22.6)
IV	2.2	5.2	2.2 (3.8)	3.1	2.8	4.1 (5.2)
V	0.2	0.6	0.2 (0.4)	0.2	0.3	0.5 (0.7)
VI	14.5	25.0	14.5 (24.6)	14.9	20.4	20.1 (25.7)
VII	3.1	6.4	3.6 (6.1)	3.1	5.8	3.9 (5.0)
VIII	25.2	40.2	25.2 (42.8)	35.0	36.9	31.6 (40.5)
Total	53.4	(100)	58.8 (100.0)	64.5	79.2	78.1 (100.0)

58.8%인데 비하여 20萬이상 都市는 78.1%이다. 이것은 3萬~5萬 都市에서 basic 1에 對하여 nonbasic 1.4이며 20 이상 都市에서는 basic: nonbasic 이 1:3.5에 해당된다. 즉 小都市는 産業人口의 절반 이상이 都市自體民을 위하여 존재하고 나머지는 背後地住民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對하여 大都市에서는 엄청난 minimum requirement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Morrissett의 美國都市의 經濟構造分析과 Ullman과 Dacey의 分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都市의 規模가 커짐에 따라 "K" value가 증가하는 것은 小都市는 都市自體民에게 財貨나 用役의 일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大都市에 의존하며 大都市는 많은 小都市에 Service 하고 있는 반영이라고 Morrissett는 설명하며 Ullman 역시 都市가 크면 클수록 많은 經濟活動의 結合으로 小都市 보다 自體의 requirement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원칙적인 의미에서 이와같은 이유가 해당되며 여기에 부가하여 大都市일수록 消費構造의 향상도 보다 높은 service requirement를 일으킨 원인이라 간주된다.

한편으로는 農村의 피폐로 農村의 유희노동자가 大都市로 抽出되어 機能화된 職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함으로써 都市自體民을 위한 産業活動의 비율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韓國都市全體가 都市自體民을 위한 service의 비중은 크다. 더군다나 大都市는 더욱더 이 현상이 極大化 함으로서 背後地와의 關係的 機能에서 볼 때 보다 철저한 自體活動의 消費都市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다.

2. 都市規模와 經濟構造

여기에서는 都市規模에 따라 經濟構造의 普遍性여부와 多角化및 特化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Alexandersson은 都市産業構造가 sporadic한가 ubiquitous한가를 定量的으로 나타내었다. 즉 一定産業의 "K" value가 national percentage의 1/4보다 적으면 그 産業은 sporadic 이라하고 1/4이상이면 ubiquitous라고 규정하였다²⁰⁾.

이에 따르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都市産業의 普遍性은 大小都市를 막론하고 ubiquitous하게 나타난다. 다만 건설업과 전기, Gas, 위생, Service業은 小都市에서는 다소나마 sporadic하며 大都市에서는 ubiquitous하다. 이것은 小都市는 大都市에 비하여 都市施設의 不備, 停滯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都市規模가 커짐에 따라 조잡하나마 거의 모든 産業의 "K" value는 증가하고 있어 小都市 보다 大都市가 더욱더 self-sufficient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minimum과 90th percentile間的 偏差는 小都市群보다 大都市群에서

Table 4. Base Calculations of 5th, 50th and 90th percentile. Rankings by Industry and Size of City 1960

City size	Class I			Class VI		
	5th	50th	90th	5th	50th	90th
30~50	0.0	0.2	0.8	14.5	29.7	33.7
50~80	0.0	0.1	0.4	14.9	25.4	31.4
80~200	0.1	0.2	0.3	20.4	24.4	28.6
200+	0.2	0.3	0.4	20.1	23.8	24.4
City size	Class II-III			Class VII		
	5th	50th	90th	5th	50th	90th
30~50	13.1	19.9	26.1	3.6	7.6	12.5
50~80	8.2	16.0	20.6	3.1	7.6	10.2
80~200	12.9	20.9	25.3	5.8	7.9	9.0
200+	17.7	22.0	24.3	3.9	5.9	9.3
City size	Class IV			Class VIII		
	5th	50th	90th	5th	50th	90th
30~50	2.2	3.4	5.3	25.2	36.3	41.4
50~80	3.1	4.5	6.2	35.0	41.3	53.2
80~200	2.8	3.4	5.0	36.9	41.6	45.6
200+	4.1	4.7	5.3	31.6	38.5	43.8
City size	Class V			Class IX		
	5th	50th	90th	5th	50th	90th
30~50	0.2	0.5	0.8	* 5th percentile accordant with minimum requirement all population figures in thousands		
50~80	0.2	0.5	0.7			
80~200	0.3	0.6	0.8			
200+	0.5	0.6	0.8			

더욱 적다. 이 현상은 대도시는 소도시 보다 産業構造가 多角化(diversification)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都市産業의 特化指數(specialization index)는 table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극히 낮다. 美國의 경우 個別産業의 特化도는 産業 또는 都市規模의 差異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를들면 소도시에서 特化指數는 製造業이 크고 service業은 작는데 비해 100

Table 5. Ratio of 90th Percentile to Median

Industry	30~50	50~80	80~200	over 200
I	4.00	4.00	1.50	1.33
II-III	1.29	1.28	1.17	1.07
IV	1.51	1.34	1.38	1.10
V	1.60	1.40	1.33	1.14
VI	1.13	1.22	1.16	1.01
VII	1.56	1.52	1.02	1.41
VIII	1.14	1.27	1.07	1.12
Average	1.23	1.27	1.12	1.10

- ① The ratio of the 90th percentile to the median provide one measure of specialization
- ② Overall measures of specialization can be found by taking the ratio of the average 90th percentile to the average median.

萬都市에서는 兩産業이 모두 特化指數가 매우 낮다 그리고 建設業과 製造業은 特化指數가 都市規模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²¹⁾.

그러나 韓國에서는 産業間 또는 都市規模에 따라 그 差異의 폭이 매우 좁아 거의 認知할 수 없으니 미약하나마 소도시 보다 대도시에서 더욱 낮아지고 있다. 다만 鑛業, 建設業, 전기, 수도, 위생 Service業은 他産業에 비해 소도시에서 特化指數가 조금 높고 대도시에 이르면 特化指數는 他産業과 거의 비슷하게 낮아진다. 이러한 現象은 앞서의 分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소도시에서는 더욱 都市施設과 社會間接資本投入의 弱體성과 不均衡을 나타낸 결과이다. 운수 보관업만은 대·소도시에서 特化도가 他産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製造業에 있어 特化도가 대·소도시를 막론하고 낮은 것은 生産樣式이나 規模에 있어 前近代의 進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고 商業과 Service業은 諸産業中 特化指數가 가장 낮다. 이것은 韓國都市가 전반적으로 行政, 交易, 文化의 中心地的 性格을 나타낸 것이라 보며 한편으로는 農村의 遊休勞動力이 이 分野로 흡수된 現象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諸現象은 韓國都市의 經濟가 거의 類似한 構造로 形成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人口가 增加함에 따라 都市規模는 커지나 거의 유사한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背後地와의 關係가 미약한 消費都市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V. 結 論

韓國都市의 經濟的 構造를 파악하는데는 그 分析의 道具가 되는 一定基準(benchmark)의 選定이 必要하였다.

本論文에서는 basic-nonbasic 概念을 적용한 Minimum Requirement Method에 의하여 "K" value를 구하고 都市規模를 人口數에의하여 4階層으로 分類하여 都市經濟構造를 分析한 結果 대체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비록 西歐의 理論과 data의 수집을 전통과 社會經濟的 與件 및 發展過程이 다른 地域에 적용하였으나 몇몇 産業을 제외하고는 service requirements가 거의 一致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一定地域의 都市數와 그 規模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소위 "K" value는 어떤 地域에서든지 都市經濟分析의 道具로 利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듯 하다.

2. city-serving requirement가 西歐에 비하여 상당

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Table 2). 이는 根本적으로 오랜 과거부터 전통적인 自給的米作農業을 영위하는 背後地가 中央集權的 官僚體制와 地主制에 의한 수탈과 政策의 結果로 零細化하고 貧困하여 都市로 부터 財貨를 구입할 能力이 부족한 地와 移動性을 촉진하는 交通機關의 欠乏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都市成長過程에서 보다시피 都市는 統治機能을 위한 場所였으며 消費生活의 무대였다는 점에서도 都市自體民을 위한 機能이 優위를 차지한 것도 하나의 要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都市經濟構造는 背後地와의 關係에서 보면 都市自體民을 위한 消費都市의 特性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City-serving employment ratio가 높은 것은 分析의 對象이 되는 都市數가 적었다는 점과 產業區分의 大別化의 影響도 작용하였다고 본다.

3. 西歐와는 달리 韓國에서는 service requirement 中에서 製造業이 地域立地上 ubiquitous 하다. 이는 兩地域間의 交通과 移動性의 差異도 있으나 韓國에서는 近代工業이 이룩되지 못한 所産이라고 본다.

4. 대체로 都市規模의 크기가 小都市에서 大都市로 移行됨에 따라 minimum requirement가 상승하고 있다(Table 3).

5. 都市規模에 관계없이 모든 産業은 ubiquitous

하게 分布되고 있다. 그리고 都市規模가 커짐에 따라 조잡하나마 모든 産業의 "K" value는 증가하며 産業構造上으로 볼때 大都市는 小都市보다 다소 多角化되어 있다(Table 4).

6. 都市産業의 特化指數는 지극히 낮다(Table 5). 또한 産業間이나 都市規模에 따라 그 差異가 적이나 鑛業, 建設業, 전기, 수도, 위생서비스業은 他産業에 비하여 미약하나마 높다. 反面 製造業은 大小都市를 막론하고 그 指數가 낮다. 이는 工業化가 이룩되지 못하고 前近代의인 전통公業의 所産이라 본다. 그리고 商業과 service業은 諸産業中 特化指數가 가장 낮다.

상기와 같은 諸現象의 分析에서 밝혀졌듯이 韓國의 都市가 特色없고 前近代의인 性格의 都市로저 類似한 經濟構造를 유지하며 消費都市의 性格을 지닌 것은 近代의인 産業化가 이룩되지 못한 所致이며 地方生活과 交易의 中心地的 역할을 한 結果로 보여진다.

금후 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特殊機能이 부여된 都市化가 進행됨으로써 전통적인 消費都市의 性格을 지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眞정한 의미에서 韓國都市經濟의 정상화는 背後地인 農村의 健全한 機能 회복없이 是 어려울 것으로 본다.

〈專任講師〉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n Cities

Young-Han Park

Summary

The aim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n cities by the of basic-nonbasic employment structure.

It is well known that cities cannot exist exclusively by taking in their own washing. They export and import commodities and services and also provide some of their own commodities and services internally. Therefore, some finite percentage of all persons employed in any city is needed to serve the city, while the remainder supports the existence of the city by serving a region greater than the city itself.

Such economic studies of urban areas are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recent years. And these studies abound in the literatures of economics, geography and regional scienc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the notions of basic-nonbasic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n regions of different economic development stages compared of Western areas.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how urban economic structures are related to city size.

To explain the nature of a city's economic structure, We need some benchmarks.

Location quotients have sometimes been used. The 'K' values suggested by Gunnar Alexandersson make probably more useful benchmarks. Alexandersson used the 1950 Census of Population to obtain the occupations of employed persons, by industry groupings, for each city with a population of 10,000 or more.

For each city he calculated the percentage of employed persons working in each industry. Then, for each industry, the cities were arrayed by these percentages and the fifth percentile from the bottom was designated as the "K" value for that industry.

Morrisett used the five percentile ranked city, regionalized the United States into the industrialized northeastern part and the less industrialized south and west. The cities were divided into twelve groups.

From his data he constructed industry curves depicting fifth, median and 90th percentile employment, related to increasing city sizes.

Ullman and Dacey used the Minimum Requirements Method which is an alternative procedure for understanding the urban employment structure.

This paper used the actual minimum percentage of the ranked groups of industries equivalent to Ullman and Dacey's Minimum Requirements Method rather than the fifth percentile.

And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n cities is analyzed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study by Morrisett.

To avoid the influence of numerous small cities the minimum city size is decided 30,000. For each set of data, the cities were grouped into size classes (Table 1).

Morrisett attempted to regionalize his data, the author of present study does not.

The Korean Census of 1960 have just nine categories. Seven of these were distinctly non-agricultural, as follows.

(I) Mining and quarrying. (II ~ III) Manufacturing (IV) Construction. (V) Electricity, gas, waterworks and health services. (VI) Commerce. (VII) Transportation, warehousing and communication. (VIII) Services.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The most interesting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close correspondence of the service requirement of each industry in spite of the data problems and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ities (Table 2).

Only the manufacturing exhibits a significant difference. This may be expressed in terms of Alexandersson and Morrisett as manufacturing being more "sporadic" in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ubiquitous" in Korea. And Service requirement is very high in Korean cities.

2. The gross minimum city-serving requirements of Korean cities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gross-minimum requirements are larger for the large cities than for the small cities (Table 3).

3.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K" values are larger for the large cities than small cities. But the most industries are ubiquitous without influence of city size.

4. The range of employment proportions is smaller in the largest size of cities.

It indicates that the economic structures of large cities are more diversified than of small cities (Table 4)

5.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of each industries is very low and similar, both between industries and between cities of different sizes. (Table 5)

But the specialization indices are much less for large cities than for small, although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참 고 문 헌

1) 여기에서 사용한 經濟的 構造란 1960年 人口 Census 에 分類된 産業別 經濟活動을 의미한다.

2) John W. Alexander: The Basic-Nonbasic Concept of Urban Economic Functions, Economic Geography vol. 30. 1954. p.246~61.

Gunnar Alexanderss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American citie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56.

Irving Morrisett: The Economic Structure of American Cities,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4. 1958 p.239~256.

Edward L. Ullman and Michael F. Dacey: The Minimum Requirements Approach to the Urban

Economic Base,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6. 1960. p.175~194.

George E. Stoner, J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rban Economic Base: The Employment Structure of Indian Cities, 1951~1961. Economic Geography, vol. 44. 1968. p.71~82.

Richard T. Pratt: An Appraisal of the Minimum Requirement Technique, Economic Geography vol 44. 1968 p.117~124

Edward L. Ullman: Minimum Requirements after a Decade; A Critique and an Appraisal, Economic Geography, vol.44 1968 p.364~369.

Harold M. Mayer and Clyde F. Kohn, edited: Readings in Urban Geogra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85~128.

Raymond E. Murphy: The American City: An Urban Geography. New York 1966 p.98~112.

James H. Johnson: Urban Geography: An Introductory Analysis, Pergamon Press, 1969 p.58~66.

國松久彌: 都市經濟地理學, 古今書院, 1969. p.69~106.

3) Irving Morrissett: op. cit., p.239~240.

4) Ibid., p.240~241.

5) Edward L. Ullman and Michael F. Dacey: op. cit., p.176~180.

6) Richard T. Pratt: op. cit., p.117~124.

7) Edward L. Ullman: op. cit., 1968. p.364~369.

8) George E. Stoner, Jr: op. cit., p.71~74.

9) 李漢淳: 南韓都市人口의 膨脹과 生態, 地理學, 1963. p.72.

10) George E. Stoner, Jr: op. cit., p.72.

11) 李漢淳: op. cit., p.75~77.

12) George E. Stoner, Jr: op. cit., p.73~74.

13) Edward L. Ullman and Michael F. Dacey: op. cit. p.178~179.

14) George E. Stoner, Jr: op. cit., p.76.

15) 李漢淳: op. cit., p80.

16) Ibid, p.77~80.

17) Irving Morrissett: op. cit., p.243.

18) George E. Stoner, Jr: op. cit., p.77.

19) 文炳鏞, 韓國의 村落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出版局, 1970. p.155~165.

20) Irving Morrissett: op. cit., p.244~245.

21) Ibid., p.251.